



발행 : 2010 년 12 월

한국 IPG 사무국(JETRO 서울센터)

한국 IPG Information

목차

< 한국 IPG 의 활동 >

➢ 제 3 회 IPG 세미나 1~4p

➢ 세관 모방품진위판정 세미나 5p

< IP 를 알자 >

➢ 알 림 6p

➢ 한국 IP 뉴스 7p

➢ 「신·지재 최전선은 지금」
(닷컴을 되찾아라!) 8p

한국 IPG 회원 등록

www.jetro-ipr.or.kr/
admin/files/IPG_mem.pdf

한국 IPG 는 일본경제산업
성과 특허청의 지원으로 운영
되며 회비는 없습니다.

한국 IPG 사무국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서울센터 지재팀

전화/02-3210-0195

e-mail/jetroiprseoul@gmail.com

榎本吉孝(에노모토·요시타카)

曹 恩実 (조은실)

趙 乾東 (조건동)

池崎麻理絵(이케자키·마리에)

한국 IPG 의 활동

‘제 3 회 한국 IPG 세미나’ 를 개최하였습니다.



일시 : 11 월 15 일(월)

오후 2 시~6 시

(6 시부터 교류회 개최)

장소 : 베스트웨스턴 프리미어

서울가든호텔 2 층

참가인원 : 65 명

❖ 개회사	나가이 S J C 이사장, 엔도 S J C 지적재산위원장
❖ 한국특허청과의 협력 강화	이수원 한국특허청장 강연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 추진현황 및 중점추진 과제』 / 특허청 산업재산 보호팀 『IPOMS 구축· 운영 현황』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 본사 지적재산부로부터 한국지사에서의 메시지	『제조업을 둘러싼 지재권 트렌드와 대두되는 중국의 I P 리스크』 / 일본지적재산협회 (닛산자동차) 코모토 겐지 부이사장 『각 업계의 한국에서의 지재전략과 현지사원에 대한 기대』 <패널디스커션> -코모토 겐지 (닛산자동차 지적재산부장) -오소노에 겐이치 (반다이 법무 지적재산부 본부장) -요시하라 토시키 (도시바 지적재산부 부장보) -고마이 신지 (스미토모 오사카 시멘트 지적재산부 담당 부부장)
	일본본사지재부 담당자와의 의견교환

사무국 소식

올해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니다. 2010 년은 한국 IPG 가 발족된 해이며, 한해동안 세미나 개최 (3 회), 세관 진위판정 세미나 개최, IPG Information (일본어와 한국어판)발행 등 바쁜 1 년이었습니다.

또한, 환도 1300 년을 맞이 한 일본 나라에서 한국과 일본의 특허청장 회의 (12 월 1 일(수))가 개최되고, 그 다음날인 2 일에는 한중일 특허청장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지식재산분야에서의 한일, 한중일의 협력 관계가 더욱 깊어지리라 기대됩니다.

회원 여러분의 올 한해는 어떠셨는지요?

「한국 IPG · Information」 에 게재된 기고 · 번역문 등은 모두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 게재된 것이므로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 제 3 회 한국 IPG 세미나 (강연내용)



제 1 부 : 한국특허청과의 협력강화



이수원 한국 특허청장은 이날 강연(왼쪽 사진)을 통해 SJC의 한국 지식재산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사항 제출 및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 도입에 대한 협력에 감사의 뜻을 표명하고 자신의 취미인 마라톤에 비유하여 SJC 및 일본기업과 좋은 파트너로서 앞으로도 함께 달리고 싶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한국특허청에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가 9월에 발족했습니다. (오른쪽 사진 15명) 강경호 산업재산보호과장은 경찰대는 상표권 을 침해한 모방품에 대해 압수·수사·구속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있으며 경 찰·검찰·지자체와의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2012년까지 32명 체제로 확대해 나갈 방침으로, 일본기업의 요구에 맞춘 단속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는 인터넷상에서 유통되는 모방품을 24 시간 감시하는 시스템 (IPOMS)을 구축하여 작년 12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구성과 단속현황, 향후 중국 사이트에 대한 범위확대 계획, 사이트상의 이미지를 통해 키워드를 추출하여 감시하는 등 동협회의 이민재 본부장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오른쪽 그림)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와 IPOMS 와 같은 한국정부의 모방품 대책시스템을 통해 일본기업 제품에 대한 모방품 단속이 이루어지고 또 일본기업도 이러한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IPG 는 상기 경찰대 및 협회와 한국에서의 지식재산 보호강화를 위한 협력을 서면으로 체결하였습니다. (왼쪽 사진)일본기업이 모방품을 발견했을 경우에 대한 신속한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상기 경찰대 및 협회는 단속에 필요한 정보 (일본기업 제품에 관한 정보)수집을 위해 일본기업의 적극적인 협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 본사가 현지법인 및 주재원에게 기대하는 것은... >

각 업계의 대표 4 분께서는 강연을 통해 현지법인과 주재원에 대한 본사가 기대하는 기대점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셨습니다. 한국·일본계 현지법인 대부분의 주재원은 지적재산 전문가가 아닌 관계로 주재원에 대한 본사의 기대는 전문적인 지적재산 활동이 아닌 본사와의 연계를 전제로 한 현지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1 정보수집과 본사와의 연계

각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와 본사와의 연계 내용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하①~④) 또한 주재원에게 기대되는 역할은 ‘한국 최전선에서의 정보발신’과 ‘회사 비즈니스의 방향성 제안’등이 기대됩니다.

- ① 모방품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시장조사 및 세관 등의 단속기관과의 연계)
- ② 자사 특허에 대한 타사 제품에 의한 침해 발견 (자사 특허기술의 이해와 타사 제품에 대한 감시)
- ③ 한국의 경쟁회사에 대한 사업동향 (특허정보 분석결과를 토대로 경쟁사의 전략을 파악)
- ④ 한국의 제도적 리스크에 대한 최신 정보 (국가 정책 및 소송 상황 등의 정보를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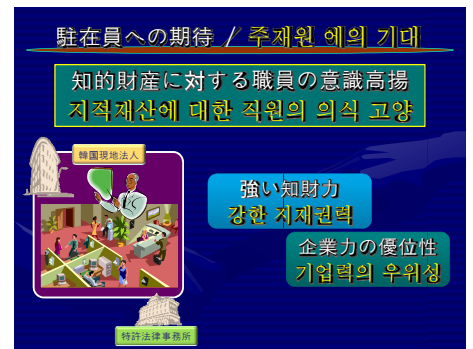
2 현지법인의 지적재산 관리

영업비밀관리 등의 매뉴얼 및 규정 정비와 이행 (인재관리, 비밀유지계약 체결), 이를 통한 기술유출 방지 등 현지법인의 지적재산관리가 중요합니다.



3 현지 직원의 지적재산에 관한 의식 고양과 교육

사내의 영업비밀 관리 외에 영업처에서의 모방품 발견 및 경쟁 타사의 팜플렛을 보고 특허침해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현지법인의 전체 직원이 자사의 지적재산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것 즉 현지법인의 ‘지재력’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재원 여러분들은 이상과 같은 점을 참고로 정보수집 및 현지법인의 지적재산 관리체제 구축시 한국 IPG 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연을 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第3回韓国IPGセミナー

日時: 2010年11月15日(月) PM14:00~PM18:00
 於: ベストウェスタンプレミア・ソウルガーデンホテル 2階 ムダンファ<ロ> ホール
 主催: SJIC知的財産委員会、日本貿易振興機構(ジェトロ)ソウル・センタ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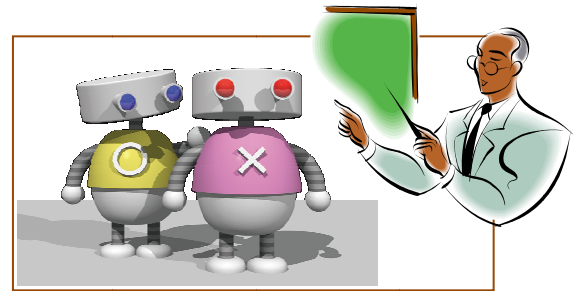
● 인천세관 ‘모방품 진위판정세미나’ 개최

일본기업 제품에 대한 모방품의 수출입, 한국 IPG가 방지한다

- 진위판정 요령을 인천세관 직원에게 알려 주는 세미나 개최 -

한국 IPG 는 한국 관세청 산하기관인 무역관련 지식재산협회 (TIPA) 와 공동으로 2 월 10 일 오후 인천세관 직원을 대상으로 ‘모방품 진위판정 세미나’를 인천항만공사 컨벤션 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보조사업)

동 세미나는 일본기업의 상표권 담당자가 자사제품의 모방품 진위판정 요령에 대해 세관의 조사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직접 연수를 실시 하고 세관 직원을 통해 통관시 단속 활동이 철저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며, 이번 세미나는 중국에서의 수입이 가 장 많은 인천세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번에 참가한 기업은 포켓몬 코리아, 산리오 (캐릭터 상품), 소니 (전자메이커), 구로브라이트 (낚시 도구, 레저 용품 등), 골드윈 (어페럴: 아웃도어 브랜드의 노스페이스), 핫코의 (납땜 인두 등)의 6 개 회사로 (이중 3 개 회사는 일본의 담당자가 직접 참석) 자사제품의 모방 실태와 진위 판정 방법에 관해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세미나에 참가한 기업 담당자는 현장에서 단속을 하는 세관 직원에게 직접 설명을 할 수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단속 현장 의 분위기도 느껴졌고, 한국 세관의 직원으로 부터 많은 질문을 받아 대단한 열의를 느껴, 모방품 수출입의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자사의 진위 식별수단도 연구해야 겠다 등의 다양한 의견이 있었을 뿐아니라 향후의 협조를 희망하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세관 직원으로 부터는 지금까지 일본기업은 미국 및 유럽의 기업에 비해 어필이 적었기 때문에 통관시 일본기업의 제품에 대해 관심이 없었던 것 같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일본기업의 모방품도 많다는 것을 알았다. 의심이 가는 제품을 발견해도 연락처가 없으면 대응할 수없다. 세관에 상표등록을 해 주길 바란다.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모방품으로 인해 한국의 이미지가 떨어지는 것은 안타깝다. 철저하게 감시할테니 정보를 많이 달라 라는 의견이 많아 철저한 단속 의사를 엿 볼수있었습니다.

다음 세미나는 2011 년 3 월에 개최 예정

상기 세미나는 기존에는 TIPA 가 회원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나 한국 IPG 와 TIPA 간의 협의를 통해 이번에 일본기업 (비회원을 포함)을 위한 시간을 할애받은 것입니다.

한국 IPG 는 한국관세청 및 TIPA 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상호협력에 관한 합의를 향후 서면으로 체결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앞으로 진위판정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수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체적으로는 2011 년 3 월에 다음 세미나가 개최될 예정이오니개최일정 등에 대한 TIPA 연락을 입수하는대로 참가 모집 안내를 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한국 IPG 는 한국관세청 및 TIPA 의 모방품 근절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협력하여 일본기업 제품의 모방품 근절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알림

한국상표협회가 발족되었습니다 (12 월 15 일)

<한국상표협회>가 한국기업의 브랜드 경영능력 강화를 통해 강한 국가브랜드 경쟁력 구축을 목적으로 12 월 15 일에 발족되었습니다.

향후 한국기업의 브랜드 경영능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의 상표 및 브랜드 관련 제도와 경영실무에 관한 전문적인 정보제공, 상표관리, 브랜드경영의 전문담당자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국내외의 상표 및 브랜드 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등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PLT 와 관련된 한국특허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되었습니다 (11 월 29 일)

PLT(특허조약)은 각국의 서로 다른 국내출원 절차에 대한 통일 및 간소화를 통해 출원인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절차상의 실수로 인한 특허권의 실효를 회복하는 등의 구제를 규정하는 조약입니다. PLT 를 한국의 특허법에 반영하기 위한 개정 방침에 대해 설명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외국어 특허출원 제도 등이 새로 도입됩니다.

앞으로 2011 년 상반기에 정부 입법절차를 거쳐, 같은 해 하반기에 국회제출하여 2012 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허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1. PLT 를 적용할 출원 및 특허 범위 / 2. 출원일 인정요건의 간소화 / 3. 선출원의 인용을 통한 의견상의 명세서 교체 / 4. 출원일 요건의 충족여부 및 보완 / 5. 누락 부분의 추후 제출 / 6. 출원시와 출원일의 개념 / 7. 번역문 제출과 법적지위 / 8. 출원일 인정후의 절차 (정식 출원 절차) / 9. 공지예외, 분할출원 등의 취지 기재요건 / 10. 우선권 주장의 보정 및 추가 / 11. 우선권 주장의 회복 / 12. 국내 우선권 주장의 요건 변경 / 13. 심사청구 및 출원공개의 제한 / 14. 대리인의 자격요건 등 / 15. 기한 연장 / 16. 권리 회복 / 17. 통지 (공지송달) / 18. 국제 특허출원에 관한 특례규정변경 / 19.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주의 에서 원문주의로 전화

잠깐 휴식~★
가로세로 낱말 맞추기

1	D		2 E		
		5		6	
3	4				
7 B			C	A	

<横のカギ>

1. 自らの思想・感情を創作的に表現した人が、その創作物について独占的に利用できる権利
3. WIPO (世界〇〇所有権機関) 本部はスイス ジュネーブ
6. 米国の特許制度に因るもので、出願審査に長期間を要した結果、対象となる技術が広く使用されるようになってから、突然現れ成立する〇〇マリン特許。
7. 特許出願時、これも願書に添付して特許庁に提出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縦のカギ>

1. 漢字で書くと「春川」。タッカルビが有名ですね。
2. おでん、タッコッチ (焼き鳥)、果物も。〇〇に刺さって屋台で売っています。
4. 韓国の六本木?! 異国の雰囲気漂うイ〇〇オン。偽物商品が多く売られています。
5. 韓国料理の代表選手、プルコギ。日本では〇〇〇〇と似ていますね。

* ABCDE 를 연결해 주세요. 정답은 마지막페이지 아래에 있습니다.



한국 IP 뉴스

● 청소년 ‘저작권 사범’ 첫 줄었다.

9월 6일에 한나라당 의원이 발표한 ‘불법저작물 단속 현황’자료를 보면 청소년의 죄질이 나쁜 저작권 침해 범죄 건수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줄었다. 청소년 저작권 침해 사범 비중은 2007년 11.1%에서 2009년 24.8%로 매년 증가하다가 올해 들어 5월 말까지 12.6% 감소했다. 저작권위원회 등에 따르면 연말까지 3년전보다 낮은 수준을 보일 전망이며 기소건수도 감소 추세이다.

2009년 7월에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위반하는 게시판을 폐쇄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청소년들에게 불법복제가 현행법 위반이라는 학습효과의 계기가 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법무부와 협력하여 2008년 8월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현재도 연장 운영 중이다.

● 디자인 권리화 필요

최근 제빵사의 이야기를 다룬 TV드라마의 영향으로 ‘빵’을 테마로 한 디자인이 등록되는 등 미디어에서 화제가 된 제조식품의 디자인 개발이 활발해 지고 있어 앞으로는 이를 디자인권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아 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특허청에 따르면 2000년 이후 다양한 제조식품의 디자인이 총 1,770건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디자인보호제도에서는 새로 개발한 디자인을 먼저 출원한 자에게 권리를 부여한다. 제조식품을 제도 및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타인의 디자인권 침해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허청에서는 유행성이 강한 제조식품의 디자인 출원에 대하여 조속히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 2008년부터 일부 심사만으로 등록을 해 주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출원후 3개월 이내에 심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스타벅스서 트는 음악 저작권 침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스타벅스 코리아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9월 9일에 ‘커피전문점에서 배경음악으로 틀어도 저작권 침해대상이 된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저작권법 시행령에는 ‘설비를 갖추고 음악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로 하는 공연은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1심에서는 ‘스타벅스의 주요 영업내용은 음악감상이 아니라 커피와 케이크 등을 판매하는 것’이라며 원고패소로 판결한바 있다. 이번 고등법원의 판결은 이것을 뒤집는 판결이다. 스타벅스는 세계 각국에 있으나 유일하게 한국만 저작권료 지불을 회피해 왔다.

● 2012년까지 특허스타기업 400개 육성

한국특허청은 2012년까지 1,200억원을 투입하여 4,600여개 중소기업에 지식재산 창출, 보호, 활용 및 인프라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이 중 우수한 중소기업 400개를 특허스타기업으로 선정·지원한다는 강화책을 발표했다. 특허스타기업이란 중소·벤처기업으로서 특허기술의 사업화 및 특허경영을 통해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기업을 말한다. 선정된 기업은 3년간 특허정보종합컨설팅을 통해 선행기술조사, 출원비용지원, 시작품제작 등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집중 지원을 받는다. 지난 3년간 특허스타기업은 일반 중소기업과 비교하여 지식재산경영에 있어 우수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 음식업 및 소매업 등 서비스표로 우선심사 신청 대폭 증가

우선심사란 요건을 갖춘 경우, 일반 서비스표심사보다 우선하여 심사해 주는 제도로써 자기가 사용할 서비스표를 가능한 빨리 등록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고, 사업 시작 후 있을지 모르는 상표권 분쟁을 예방 및 사업의 안정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장점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어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특허 검색, 스마트폰 하나로 똑딱

한국특허청은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과 모바일 전용 홈페이지<모바일 특허청>을 개발하여 10월 22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했다. 본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일상생활 속에서 접하게 되는 상품에 기재된 특허 출원번호나 등록번호를 이용해 출원인, 특허 등록 여부 및 특허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고 특허의 진위 여부도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선행특허 검색도 언제 어디서든지 이용할 수 있어 변리사, 기업의 R&D 담당자 및 연구원의 특허정보에 대한 의식향상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안드로이드폰용을 선행 판매, 아이폰용 앱은 12월 중에 판매할 예정이다.

※ 자세한 기사, 그 밖의 뉴스에 대해서는 ‘한국 지적재산 뉴스’를 참조 바랍니다.

URL : www.jetro-ipr.or.kr/news/news02.asp

닷컴을 되찾아라!

File No. 26

‘addidas.com’. 이 도메인명을 등록·사용하던 한국인 윤씨에 대해 세계적인 스포츠용품 메이커인 adidas AG (독일) 가 도메인 네임 이전을 요구하며 분쟁을 제기했다. 유명상표 ‘adidas’ ‘d’ 을 추가한 ‘addidas.com’ 은 인터넷 이용자의 타이프 미스를 통한 접근을 노린 ‘typo (타이프 미스) 도메인’이다. ‘.com’ 은 국제적으로 관리되는 도메인 (gTLD) 이므로 ‘.kr’ 및 ‘.jp’ 와 같은 국가별 코드에 의한 도메인 (ccTLD) 과 다르다. 이러한 분쟁은 국제 규칙에 따라 처리된다.

도메인명은 인터넷상의 주소라는 본래의 기능을 넘어 상표 및 서비스표, 상호와 마찬가지로 전자상거래에서 영업표지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상표권과의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분쟁이 된 일본 상표의 도메인명 예

pioneer.co.kr / fanuc.co.kr / isetan.co.kr / oki.co.kr /
epsonmail.com, eposon-ink.net, eposonx.com, eposonstore.co.kr
/ uniqlokorea.com, uniqlochina.com, uniqllo.org /
morinaga.co.kr / sonybank.com / sanrio.co.kr

(1) 재판 혹은 조정

이러한 분쟁은 기존에는 사법제도를 통해 해결되었으나 국제 규칙인 ‘통합 도메인명 분쟁처리 방침 (UDRP)’ 이 제정된 1999 년 이후 조정·중재 등 재판외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해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조정 신청은 도메인네임의 등록인이 한국인인 경우에는 gTLD 도메인네임에 대해서는 ‘아시아지역의 도메인네임 분쟁 중재기관 (ADNDRC - Seoul Office)’ 에 하고, ccTLD 도메인네임에 대해서는 한국의 ‘도메인네임분쟁조정규정 (KDRP)’ 에 따라 ‘한국 인터넷 주소 분쟁조정위원회 (IDRC)’ 에 한국어로 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고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조정 신청은 도메인네임 등록 정보에 있는 등록인의 이메일 주소로 강제조정신청서를 전자 송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며, 신청즉시 해당 도메인네임의 권리 이전 등이 금지 됩니다.

한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등록인의 이름과 주소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도메인네임의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보전처분 소송을 해야 하므로 조정 절차를 이용하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2) ‘말소’와 ‘이전’

조정의 경우 상표권자는 ‘UDRP’ 및 ‘KDRP’ 의 규칙에

따라 대상 도메인명의 등록 ‘말소’ 결정 또는 상표권자에게 ‘이전’ 하라는 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록을 말소해도 또 다른 사람이 도메인네임을 바로 등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는 ‘ccTLD’ 에 관한 한 말소 결정후에는 상표권자가 우선적으로 등록할 수있도록 하고 있으나, ‘gTLD’ 에 관해서는 상표권자가 해당 도메인네임을 확보하는 것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표권자에게 매우 불리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재판소의 새로운 규칙

도메인네임 등록의 말소 또는 이전을 명령하는 조정결정에 대해 등록인이 불복소송을 제기하면 분쟁 장소는 법원으로 옮겨지고 조정규칙을 정한 ‘UDRP’ 및 ‘KDRP’의 규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이전’ 규정은 없고 법원은 도메인네임의 사용금지 또는 등록 말소의 판결만 선고할 뿐이므로, 상표권자는 분쟁을 해결하기에 적잖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편, 한국은 작년에 관련법을 개정하여 도메인네임 등의 등록의 ‘말소’ 또는 ‘이전’ 을 법원에 청구할 수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인터넷주소자원법’이 ‘.kr’ 등의 ‘ccTLD’ 분쟁에 있어서 적용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com’ 등의 ‘gTLD’ 분쟁에 있어서도 적용 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어난 addidas.com 사건에서 adidas AG 는 윤씨를 상대로 강제조정 신청을 제기하여 등록 ‘이전’ 결정을 얻어냈습니다만 윤씨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gTLD’ 분쟁인 이 사건에서도 ‘인터넷 주소 자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도메인명을 상표권자에게 이전하도록 판결을 선고 했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비록 하급심판결이지만 한국의 법원이 ‘gTLD’ 에 대해서도 상표권자에게 도메인네임을 ‘이전’ 하는 판결을 내릴 수있게 된 것은 일보 전진으로 볼수 있습니다.

<해설자 : 한국 I P G 협의회원>

특허법인 화우 이덕재 변리사

1966 년생. 한국외국어대학 법과대학 법학사

대한변리사회 교육이사, 한국특허청 국제특허연수원

강사, 특허청 변리사자격심의위원회 위원, 특허청

상표정책자문위원, 한국도메인명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아시아도메인명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감수 : 일본무역진흥기구 제트로 서울센터

부소장 에노모토 요시타카

가로세로 맞추기 정답 : ショクヨク (食欲)

<<The Daily NNA 【한국판】 지면으로 매월 두 번째 수요일에 연재>>

